특집 : 교회 교육 기구

이번 성도의 벗 3월호에서는 교회의 교육 기구인 "신학 연구원"에 대한 특집을 마련하였다. 성도들에게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외의 활동 등을 안내하고자 1989년 1월 20일 서울 동 신학 연구원에서 좌담회를 가졌다. 이 날 모임은 성도의 벗 기자인 박 영미 자매가 사회를 보았고, 그 외의 신학 연구원 교수들과 동 신학 연구원 졸업생 회장인 박 광식 형제, 그리고 다섯 명의 서울 동, 서 신학 연구원 학생회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이 모임은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탐구하고,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신학 연구원을 성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좀더 많은 회원들이 이 훌륭한 프로그램에 참석하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참석자 : 박 병규 형제(한국 교육 기구 대표)

서 희철 형제(서울 동 신학 연구원 원장)

이 도환 형제(서울 서 신학 연구원 원장)

박 광식 형제(동 신학 연구원 졸업생 회장)

고 효선 형제(동 신학 연구원 학생회 회장)

김 광영 형제(서 신학 연구원 학생회 회장)

최 윤희 자매(서 신학 연구원 학생회 부회장)

박 영미 자매(동 신학 연구원 학생회 임원, 성도의 벗 기자)

박 영신 자매(동 신학 연구원 학생회 임원, 성도의 벗 기자)

사회자 :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교수님과 학생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승영이라는 높은 가치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세워진 이 신학 연구원이 많은 회원에게 잘 알려지고 또 경전 지식과 교회의 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신학원이 갖는 기본 목표부터 말씀해 주세요.

서희철 : 지금 우리가 신학 연구원이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의 원래 이름은 영어로 Church Education system입니다. 즉 교회의 교육 기구라는 뜻이죠. 교회의 교육 기구라 하는 말은 모든 성도들의 교육에 관련되는 프로그램만을 실시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학 연구원 하면 종교, 혹은 경전만을 가르치는 곳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지요.

교회 교육 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강화시키고 두번째로는 우리가 가정 생활을 능률적으로 안정되게 이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교회에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지도력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네번째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는 직업적인 능력과 일하는 습성, 성실, 근면성을 기르는 것이고

여섯번째로 자존심, 창조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육 기구, 즉 신학 연구원의 목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좌 : 박 광식 형제
우 : 박 병규 형제

그리고 교육 기구 프로그램에는 중등부, 대학부가 있습니다.

사회자 : 네, 그렇군요. 그럼 신학 연구원이 세워진 이래로 등록된 학생수가 많았던 해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듯 싶은데요. 배출된 인원 현황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굴곡이 있나요.

서희철 : 저희 신학 연구원의 학생수는 대개의 경우 침례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종자들이 많아지면 학생들이 많아지고, 또 개종자들이 줄어들면 저희 학생들도 따라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한 경향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많은 개종자들이 침례받고 이곳을 찾아 졸업하였는데 졸업생 회장이신 박 광식 형제님은 신학원에서 배웠던 교회 원리와 경전 지식들이 개인의 간증과 신앙 생활에 토대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영향이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박광식 : 저의 경우는 이곳에 먼저 들어와서 교리를 배우다보니까 간증이 생겨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곳을 나오는 사람은 복음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선교 사업을

좌 : 박 영신 자매
중 : 서 희철 형제
우 : 최 윤희 자매

나가려고 하고 또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동안 신학 연구원에 다니시면서 인상에 남는 기억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박광식 : 저는 신학 연구원을 13년간 다녔는데 자꾸만 낙제를 하다보니 졸업을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웃음) 공부하는 과정에서 간증이 커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과의 대화는 항상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경전지식과 모범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가져왔어요.

사회자 : 이곳에서 갖는 구체적 교과목과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이 도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도환 : 먼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4대 경전, 즉 몰몬경, 성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와 교회사, 복음전도, 해의 왕국의 결혼 등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통신과정이 있어서 모든 회원들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회자 : 통신과정으로, 바쁜 회원들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라 여겨져요. 박 교수님, 시간의 제약없이 이곳을 찾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강의시간에 가지게 되는 느낌이 남다르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박병규 : 신학 연구원을 찾는 학생들을 보면 영적으로 큰 소망이 있고, 또 잘 준비되어 있는 영들임을 느낄 수 있어요. 연령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성숙해 있는 영들임을 느끼게 합니다. 또, 신학 연구에 참여하여 발전하는 모습은 대단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배운 것을 조금씩 행동에 옮겨보겠다는 태도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젊은 영들이 이곳에 모여 성실히 진리를 배우고 추구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장래가 아주 밝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 : 저는 서 희철 교수님의 몰몬경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간증과 특별히 선교 사업에 대하여도 간증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간증은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오는 갈등이 항상 있는데요. 학생들이나 졸업생이 어떠한 고민으로 교수님들을 찾고 신앙의 힘을 얻고자 하는지요.

박병규 : 우선 여기에 오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신학 원구원에 나오는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 고민하고, 또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공부해야하는 시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또 한 가지는 부모님들도 자녀가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도 훌륭해야 한다는 소망을 갖지만 당면해 있는 입시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녀가 중등부에 시간을 내는 일에 과감하게 권장하는 일을 조금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 네. 이러한 문제는 학생의 큰 고민이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보며 극복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찾는 학생들에게 서 교수님은 어떠한 격려와 말씀을 해 주시는지요?

서희철 : 학생들과 접견을 할 때엔 첫번째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감독님이 접견해야 할 부분을 신학 연구원에서 접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할 접견이 따로 있고, 신학 연구원에서는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련되어서 교육과 교회와 그리고 자신,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있을 때 중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로 접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대학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부모님들은 학교 교육을 잘 받기를 원하고, 본인은 교회에서 배운 바에 따라서 학교 교육보다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종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갈등으로 표면화될 때에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교회의 원칙을 지키고 세상적인

교육과 종교적인 교육이 조화를 이룰수 있게 방향을 수정하게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회자 : 새벽반 세미나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시간들이라고 모두들 여길 것입니다. 경전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도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에 따르는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도 학생회가 있는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김광영 : 정규 수업외에 학생들의 여러 가지 활동, 즉 무도회, 체육대회, 발표회 등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고효선 : 신학 연구원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경전에 대한 지식들을 배우는 곳인데 꼭 그러한 것 외에도 무엇인가 더 학생들의 필요 사항이 있을 것이예요. 사교적인 것이든지 오락적인 것이든지 학생들을 좀더 강화시킬 수 있고, 그러한 방편으로써 학생회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지금 재학생으로서 또 학생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데요. 이 모임을 이끌어 가게된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효선 : 저의 동기라 한다면 교수님께서 학생회를 맡아보지 않겠느냐고 하시기에 제자신의 다른 일도 있지만 오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했죠.

사회자 : 실지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고효선 : 실지로 모임을 해보니까 상당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바쁘더군요.(웃음) 그렇지만 제한된 시간을 얼마만큼 잘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학생회를 좀더 잘 할 수 있게

좌로부터 박 병규 형제, 고 효선 형제, 김 광영 형제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잘 도와주었을 때 모임이 아주 잘 되어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학생회를 통해서 지도자님들의 일에 대한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해서 신학 연구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 : 어떤 모임이든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겠죠. 이곳에서도 바로 그러한 순종과 협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최윤희 자매님은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얘기해 주셔요.

최윤희 : 교수님들의 간증과 말씀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감사드려요. 그리고 학생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활동을 통해서 우정이 증진되었고 즐거운 추억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신학 연구원의 중요성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사회자 : 교회가 잘 이끌어 지기 위해선 많은 회원들의 도움이 있어야 하듯이 신학 연구원도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수님과 학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실텐데요. 신권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사항이 있으리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도환 : 신권 지도자들이 신학 연구원을 아주 많이 도와 주십니다. 그러나 조금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특별히 일년의 두 번, 매학기마다 입학식 때 감독, 지부장님들이 좀더 많은 학생들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입니다.

박광식 : 그러기 위해선 스테이크 부장님들이 신학 연구원 등록을 하도록 도와 주셔야 합니다.

박병규 : 우리가 신권 지도자에게 때때로 이러한 것들이 잊혀지고 있을 때 생각나실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는 일을 해야하고 또 이런 일에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잘 알려야 하겠죠. 학생들의 등록이 역시 침례와 관계있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잘 먹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철 : 교육 기구에 최고 책임자가 누구시냐하면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이십니다. 제일보좌로는 고든 비 힝클리, 제이보좌로는 토마슨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십니다. 교육 기구를 담당하는 부르스 맥슨 박사의 보고를 들으신 벤슨 대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교육 기구에 있는 위원들을 참 사랑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사랑한다. 또 내가 그들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학 연구원이 따로 있고

교회의 와드, 지부가 따로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 기구 지침서에 보면 스테이크 부장들이 신권 집행 위원회에서 고등평의원들과 함께 신학 연구원에 입학하도록 장려하는 말씀이 있고 또 감독과 지부장들은 청소년 학생들이 신학 연구원에 등록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선 입학하는 학생들을 잘 가리키면 되거든요.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신학 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학생들의 등록 동기를 통계 내보았습니다. 그중에 약 70%정도가 감독, 지부장의 권고로였고, 신학 연구원에 다니는 친구로 인하여가 약 20%, 그 다음이 선교사들의 소개로 찾게 됐다는 통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신학 연구원 프로그램은 신권 지도자들이 도와 주어야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러한 도움이 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많은 사항중에서도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바라는 사항이 있을것 같은데요.

박병규 :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동안에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희철 :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젊은이들은 분명하고 뚜렷한 인생관을 통해 자기 설계를 확립하고, 이곳을 통해서 환경을 강화하고 선교 사업을 아주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도환 : 수업을 할 때 개인 사정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종강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수업의 준비성은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사회자 : 네. 준비하여야 한다는 말씀은 신약의 열처녀의 비유로 권고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준비된 교수님이 계신데 수업을 받는 자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무 것도 얻을 수가 없겠지요.

최윤희 : 아ㅡ.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교수님들과 학생들과의 대화가 좀더 많아지고 또 방학 때 신학 연구원을 한다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서희철 : 그런점에선 우리가 잘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입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일요일에도 경전을 가까이 하기 힘드는데 평일에도 하느냐하는 회원들의 건의를 받곤 했어요. 한국의 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신학 연구원 본부에 알렸죠. 현지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평일에는 하지않고 중등부 세미나리 시간에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특히 한국, 일본, 대만 등은 입시가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킴볼 대관장님께선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세상적인 사상과 교육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과 경전을 학교 공부할 때 똑같이 전해 주어서 복음에 대한 간증이 강화되어야만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후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공부와 같은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킴볼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돼지우리 속에서 진주을 찾는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님들의 권고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찾는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재학생들이 교수님들께 바라는 사항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고효선 : 교수님들께서는 나름대로 가르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전달받고 우리가 잘 준비된다면 충분히 영을 느끼고 그분들이 주시고자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좀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까 최윤희 자매가 이야기하였듯이 학생들간의 유대관계에 있어서 수업하기 전이나 끝난 후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맺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수님 나름대로의 생각과 방법이 있으시지만 이러한 요구 만큼은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크게 자리잡는 것 같습니다.

이도환 : 진학, 취업에 관한 것이든지 하는 문제로 저희들을

좌담회 광경

찾는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윤희 : 그런데요, 그런 문제는 들어가게 되면 하지만 그 들어가는 과정이 힘들죠.

고효선 : 오전 시간의 학생들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늦은 저녁 시간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힘듭니다. 결석하는 학생이 있을 때 저희 학생들도 물론 연락은 하지만 교수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전화를 해 주신다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송구스런 마음으로도 다음 시간에 참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회자 : 저뿐만이 아닌 모든 분이 같은 생각을 하리라 봅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좀더 강화될 때마다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강의를 통해 교수님들도 보람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개인의 습관, 버릇이 생긴 것이 있거나 사라진 것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 등이 있으셨을 텐데요. 서 교수님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서희철 : 그러니까 내가 제일 고칠 점이 많다는 겁니까? (웃음) 여러 교수님들도 그러한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선교 사업을 나간 형제, 자매들이 편지를 보내 오는데, 신학 연구원에서 들은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서 내가 이곳을 다니지 않았더라면 지금 선교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사실을 신학 연구원 재학생들에게 알려 주어서 다니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선교사의 훌륭한 자질을 향상시키고 선교 사업을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예요. 그러한 편지를 받을 때 신학 연구원이 학생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업의 기쁨, 보람들을 느끼게 도와주시는 것을 아주 보람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도환 : 저희 교회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신촌은 말 그대로 새로 세워진 동네입니다. (웃음) 그러니 무엇보다 그러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원들이 많이 오게 되고 또 성전에 올 때 교회가 발전하게 되겠죠.

박광식 : 물론 신학 연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등부 세미나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학 연구원의 발전은 세미나리에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신학 연구원이 있음으로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해의 왕국에는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도환 :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분들을 선교 사업에 보낼 수 있었고 비활동 회원을 방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이죠.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최윤희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학기간 중에도 수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것이 방학동안 방심하게 되는 생활을 정리해 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서희철 :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과 지도자님들이 함께 도와주실 때 그 결실을 아주 좋은 열매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박영신 : 저는 이 자리에 지금까지 기자로서 참석했는데요. 저 역시 신학 연구원에서 영동 스테이크 대표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에 저의

좌 : 이 도환 형제
우 : 박 영미 자매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 연구원의 모든 학생들이 활동적이기를 바래요. 또한 가능하다면 학생회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그마한 간증을 얻을 수 있고, 수업 시간에 배운 강의를 다른 이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거든요.

고효선 : 저는 봉사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신학 연구원이 활발하게 되려면 우선 학생회에 학생들이 많이 있어야 해요. 각 와드, 지부의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 생각합니다.

박병규 : 먼저, 성도의 벗사에서 신학 연구원에 대해 특집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학 연구원은 교회 교육 기구로서 초대경전과 예언자의 말씀 가운데서 발굴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교육과 모범으로서 효과적으로 가르침으로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고 또 복음의 의식을 받고 승영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 격려와 도움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나 교사들에게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며,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신권 지도자나 회원들의 기대에 온전히 미치지 못하였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행하는데 있어서 신권 지도자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던 말씀일 것입니다. 산 교육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지하고서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주변을 보고, 스스로 준비하는 자녀가 되도록 서로가 사랑으로 도와야겠습니다. 이 모임으로 인하여 많은 회원들이 신학원을 찾았으면 합니다.

모임은 찬송가 58장 때가 임박하니를 부른 후에 박 영신 자매의 기도로 끝냈다. 찬송의 "때가 임박하니 온 세상에 기쁜 소식 전할 시간 얼마 없구나"와 같이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은 듯 하다.

좌담회를 통해서 얻은 훌륭한 느낌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없음을 통감하며 좁은 특집란을 차고 넘치게 했던 것처럼 신학 연구원의 재학생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리 : 박 영미, 박 영신 기자

신학원 학생회와 입학과정

신학원은 교회의 교육기구로서 회복된 복음에 대한 올바르고 자세한 지식을 전해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연령의 모든 회원을 학생으로 받고 있다. 신학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약, 신약, 몰몬경, 교리와 성약 등의 표준 경전을 가르친다. 한 경전을 Ⅰ, Ⅱ부로 나누어 2학기에 걸쳐 강의하기 때문에 모두 8과목이 된다.

특정한 순서에 관계없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순으로 신청을 하여서 수업을 듣게 된다. 한번에 듣는 과목의 수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각 과목은 일주일에 한 시간씩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에 맞는 요일을 선택할 수 있다. 한 시간당 수업시간은 90분이다.

수업은 또한 수업료를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학원 학생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학기에 한번씩 소정의 학생회비를 걷고있다. 그 학생회비는 신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외의 개강·종강 파티, 테버나클 축제, 특강 등의 활동에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신학원 학생회에서 준비하게 된다. 학생회는 회장단 이외에 미술부, 정찬부, 활동부, 학술부, 홍보부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 미술부는 모임을 위한 신학원의 장식, 안내 팜플렛의 디자인, 포스터 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정찬부는 학생회에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정찬부의 역활은 신학원에 모임이 있을 때 제공되는 모든 음식을 만든다.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그 모임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여줄 수 있게 하는 부라 할 수 있겠다.
- 활동부 역시 그 위치가 높다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신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강·종강 파티, 테버나클 축제 등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 또한 다양하다.
- 학술부는 특강, 세미나, 토론회 등을 준비하는 부이다.
- 홍보부는 각 스테이크 대표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들의 역할은 연락과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학생회의 구성원은 신학연구원에 입학한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단만은 신학원의 교수들이 선출하지만 다른 임원들은 자체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원의 입학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연령이면 된다. 신학원은 개강이 3월 첫번째 화요일이므로 가능한 입학원서는 2월 말까지 신학원에 제출하고 교수진과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 된다. 입학 과정은 간단하고 쉽지만 참여하는 회원은 그리 많지만은 않은 편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많은 교회의 회원들이 이 훌륭한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나의 학생회 활동

고 효선 형제

1988년 5월 둘째주 화요일 학교에서 LDS모임을 마친뒤 서 회철 동 신학원 원장님께서는 학생회 회장으로 봉사해줄 것을 이야기하셨다. 교회에서 주는 부름이기에 승낙을 하고 5월 11일 회장단이 발표되었다. 부회장에는 박 철홍 형제와 윤 재경 자매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첫 당면한 과제는 카멜론 교육감의 방한이었다. 그때 중창을 생각하면 정비되지 않은 조직이라 썩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스테이크 대표들을 구성하고 그에 따르는 활동 부서를 조직하여 우리는 서 신학원과 합동 모임을 추진하며 부산한 종강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교수님들께 조그마한 선물로 겹겹이(약20번 정도) 포장을 해서 드리고 간증을 듣는 등, 정찬부에서 준비한 음식을 들고, 우리는 수련회를 위해 계획을 짰다. 장소는 샛터였다.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음식만 먹다 온 것 같다.

그 뒤에 막바로 매주 일요일에 스테이크를 순회하면서 신학원 노변의 밤을 가졌다. 서울, 동, 동대문, 영동 스테이크 순으로 순회하였다. 그때마다 학생회에선 간증과 중창을 준비하였고 교수님들의 말씀으로 많은 기쁨을 나눴다.

또 10월 30일에는 용두 와드에서 동, 서 신학원 합동 체육대회를 가졌다.

학생회 모임은 매주 토요일 11시이다. 새해들어 첫 모임을 가졌다. 그것은 광주, 서, 동 신학원이 합동으로 수련회를 광주에서 갖기 위한 것이었다.

총 38명이 참여한 수련회는 우리가 계획한대로 조별 발표와 조 용현 교수님의 세미나리, 광주 독신들과의 합동 무도회, 광주 시내를 도정에서 박물관까지 구경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그곳에서의 우정을 안고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게임과 노래를 하다가 찬송가로 바뀔 때 이 모임이 갖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다.

은밀한 가운데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준 형제, 자매들 덕분에 학생회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 1년동안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힘들기는 했지만 반면에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었고 형제애를 느끼며 다른 사람들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동, 서, 광주 신학원 동계 수련회

새 학기에 만납시다

영동 스테이크에서는 1월 28일 오후 7시 잠실 와드에서 신학 연구원 교수 초청 노변의 밤을 가졌다.

얼마 있지 않아서 개강이 될 신학 연구원의 수강생 증대 및 신입생에게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 이번 모임에는 동 신학 연구원의 전 교수진은 물론 영동 스테이크장단이 참석하여 스테이크와 신학 연구원측의 젊은이에 대한 관심빈도가 높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참석한 영동 스테이크의 젊은이의 수는 적어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50여 명의 이날 참석자들은 잘 준비된 세 교수의 말씀과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비교적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영동 스테이크장은 이 날 인사 말씀에서 중요한 신학 연구원 수강에 여러 젊은이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신학 연구원의 교수진은 조 만구, 최 동일, 박 병규, 서 회철 형제였으며 피아노 독주자는 반포 지부의 도 언효 자매와 잠실 와드의 이 명숙 자매였다.

기사 제공 : 유 장철 기자

한 현직 교사의 간증

임 종하 형제(광주 신학 연구원장)

어느날인가 "나도 신학 연구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럴수 있겠지" 이렇게 단순히 당시의 신학 연구원장이던 박 병규 원장님과 나눈 대화가 1978년 10월 실현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친구의 소개로 선교사를 만나 시작된 종교 생활이 3개월이 안되어 교리적 지식과 배경이 없던 나를 주일학교 교사가 되게 하고 드디어 신학 연구원의 교사가 되게 했으니 이것이 분명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애숭이 교사로 그후 신권 지도자를 도와 성도를 온전케 하고자 표준 경전과 예언자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게 되었으며 교훈과 모범으로 효과적인 교사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그러하듯 온몸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 자료를 번역하고 인쇄하며 여행하는 일에 바쁘게 되었다.

신학 연구원의 한 가지 특징은 경전을 주교재로 하며 주제별이 아닌 내용과 역사적 순서에 따라 가르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비 시험지를 나누어 주어 답을 찾게 함으로서 경전을 읽게 하고 성구를 표시하게 하여 경전 그 자체의 내용을 토론함으로써 졸업할 때 까지 표준 경전을 가능한 한 한번씩 읽도록 돕고 있다.

우리들은 모임을 통해 등록을 더 많이 시키고, 출석률을 향상 시키며,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을 돕고자 애쓰며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목표로 삼는다.

학생들은 참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극소수의 학생은 매 학기마다 등록을 하지만 아무말도 없이 학기 내내 보이지 않으며, 어떤 학생은 학기 내내 충실하지만 시험 때만 다가오면 안 나오며, 어떤 학생은 등록한 후 얼마 안되어서 중요한 일이 있으니 다음 학기에 수강하겠다고 하면서 물러간다. 이런 학생들로 인해 슬퍼하면서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으며 다음에도 또 중요한 일이 있을테니 미루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하며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기도만으로 우리의 안타까움을 대신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자신을 돌이켜 보며 더욱 매력있는 수업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애쓴다. 사실 매력있고 잘 가르치는 교사는 많은 학생이 등록하고 출석하며 끝까지 이수하는 비율이 높다.

한편 과욕하지 않고 매학기 한 과목씩 꾸준히 수강하는 학생과, 굳은 결심으로 기어이 한 학기를 이수하는 학생과,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자 멀리서 통학하며 일년동안 전과목을 열심히 이수하여 마침내 선교 사업을 행하고 귀환하여 교회의 튼튼한 역원이 되는 학생과, 이제 막 개종하여 열심히 질문하는 학생과, 기대하지도 않던 학생이 주님의 충실한 아들 딸이 될 때에 우리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1976년 9월, 첫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 우리 지역의 졸업생들의 교회 활동율은 85% 이상이며 최근 2~3년간은 99% 이상이고, 졸업생 전체의 삼분의 일 이상이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최근에는 55% 이상 봉사하였고, 대부분 지역 신권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다.

선교 사업은 분명 신학 연구원이나 교회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큰 축복이고 훗날의 충실한 교회 생활의 밑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제 몇가지 깨달음과 감사와 간증을 드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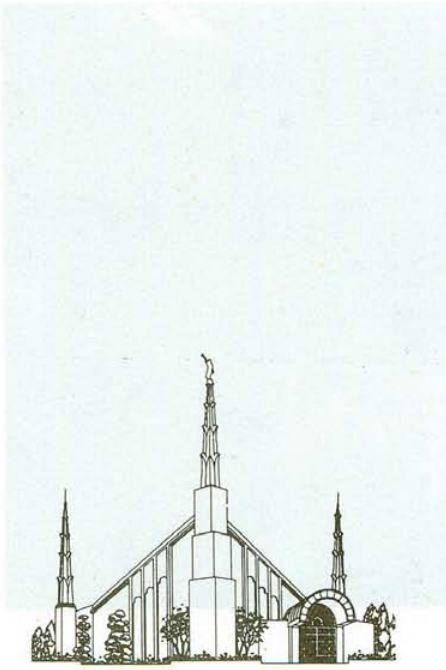
몇가지 깨달음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연구하고 쌓아두면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수업 시간에 자주 느낄 수 있었으며,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영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르치고 계속하여 충실하고 순종하면 지식에 지식을 은혜에 은혜를 받아 우리의 이해력이 크고 넓어져서 오묘한 부분도 이해할 수 있으며, 성신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어 깨닫게 하신다는 점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기도할 줄도 모르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 대중 앞에 서 보지도 못하고 경전의 지식도 없던 나에게 교사의 기회를 주었으며, 신권을 주어 봉사하게 하시고, 조그만 지식과 권세를 뽐내며 교만하던 나를 참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주시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신학원의 교사로 부름받아 수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거짓이라면 나는 얼마나 큰 거짓말장이가 될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때까지 나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었다. 나는 그때 몰몬경의 목격자들의 증언과 일생이 생각났으며 하나님은 내게 그들의 간증은 참되다고 증거해 주셨으므로 내마음은 걱정과 불안에서 평화와 확신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표준 경전과 예언자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연구하고

가르침에 따라 생활한 오늘, 나의 이해력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으며, 교회의 가르침은 참되며, 모순이 없고, 진리는 풍성하며, 몰몬경은 참되고, 구원의 교리가 여기에 있으며, 요셉 스미스는 참된 예언자이시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교회 주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비판과 공격과 잘못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었다.

매일의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무사히 귀가 하기를 기도해 준 은덕으로 수많은 여행에서 무사했으며 건강했음을 감사드린다. 첫 기도는 의미없이 바친 기도였으나 이제는 뜻없이 무릎꿇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 부지런해야지, 더 많이 충성해야지,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지, 영의 속삭임에 더욱 민감해야지 다짐하면서 새 학기에는 더욱 많은 학생이 등록하기를 기대해 본다. 모든 말씀과 간증을 예수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터전 신학 연구원

이 경숙 자매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학생들이 바삐 움직일 때면 나는 신촌의 언덕길을 오르는 횟수가 많아진다. 신학 연구원이 개강을 하기 때문이다. 근사한 졸업장을 받았지만 사실상 그곳은 졸업이 없는 곳이다. 학점을 받기 위해 공부할 때처럼 하게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찾고 있는 곳이다. 나는 그곳에서 간증을 키웠고 그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강의실에 들어간 첫날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내가 복음을 가르쳤던 세 자매가 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 나처럼 강의를 들으러 왔던 것이다. 독신 개종자들에게 신학 연구원에 가기를 권유하기는 했지만 설마 같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게 될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교회 회원이면 누구나 동창생이 될 수 있는 곳이 신학 연구원이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아들과 손주들이 동창생으로 불릴 수 있는 멋진 곳이 바로 신학 연구원이다.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을 다녀 신학 연구원을 졸업했다. 그러나 시간이 되는 한 계속 신학 연구원을 찾을 생각이다. 이제 예전에 다니던 사람들의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고 새로운 얼굴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개종한지 얼마 안된 형제, 자매들이다. 나는 그들에게 신학 연구원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부탁하고 싶다

신학 연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곳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목적을 배우며 주님의 사랑을 키워 나가게 된다. 또한 신앙인으로서 자세를 배우며 점검할 수 있는 곳이다.

나는 신학 연구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그것에 대한 간증을 킴볼 대관장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나는 신학 연구원 교육 과정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학 연구원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양육되고 성전 결혼을 하도록 돕고 마지막에 가서는 승영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 연구원의 정규 종교 교육은 교회의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승영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직접 도울 수 있고 가정을 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모든 우리 선택받은 젊은이들이 그들 자신은 물론 그들의 동료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인식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 신학 연구원의 교육 기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경숙 자매는 1988년 3월에 서 신학 연구원을 졸업했으며 졸업식 때 신학 연구원 장상을 받았다. 현재는 강서 와드 청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동 스테이크 대회

1989년도 전반기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1월 14, 15 양일간에 스테이크 센터인 미아 와드에서 구 본동 스테이크장의 감리와 최 동일 형제의 사회로 열렸다. 이 대회에는 고 원용 서울 지역 대표와 팔머 성전장이 함께 했다. 토요 대회에서 훌륭한 말씀을 들은 회원들은 부푼 마음으로 일요 대회에 참석 하였다. 일요 대회에서 번동 와드와 미와 와드 회원들의 안내로 대회장에 참석한 회원들은 경건한 가운데 모임에 주시했다.

말씀 순서에서 먼저 귀환한 송 숙자 자매 선교사는 선교 사업중 자신의 간증과 신앙이 한층 발전될 수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선교 사업의 목적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간증과 신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함으로 두었다고 하였다. 또한 송 자매는 선교사라면 한번쯤 느끼는 사랑, 겸손, 인내의 참뜻을 배웠다고 간증했다. 다음으로 도봉 와드의 한 숙자 자매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이 충실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에 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번동 와드의 전 미정 자매는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며 성전 사업, 선교 사업으로 인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다.

스테이크 축복사 박 수한 형제는 얼마 전까지 사랑의 반대는 증오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며 가족이 보여 주는 관심으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했다.

차례에 이어 팔머 성전장은 모세서 1장 39절을 인용하면서 불사불멸과 영생의 참다운 의미를 전해 주었다. 불사불멸이란 영원히 사는 것인데 주님의 부활로 인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며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 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광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또한 주님의 집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과 성약을 통해서만이 합당한 권능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갈 수 있다고 말씀했다.

고 원용 서울 지역 대표는 동 스테이크장으로 재임당시 동 스테이크 첫번째 대회를 1979년 4월 18일에 신당 와드에서 가졌던 일을 회상하며 감회에 젖었었다. 고 원용 장로는 말씀 주제를 우리는 누구인가로 정하고 한국민에 800 : 1의 비율로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우리지만 마지막날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더서 12장 6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낙담하지 말고 이 시련 뒤에는 주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항상 복음을 가까이 두고 사탄의 유혹을 멀리 두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했다.

마지막 말씀 순서로 구 본동 동 스테이크장은 교리와 성약 133편 37절을 인용하면서 1988년 12월 31일자로 발행된 처치 뉴스에 실린 기사를 보면 몰몬경이 최초로 발행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80개국 언어와 35,200,000부의 책으로 발행되었다고 말씀했다. 과거에는 영어로 쓰여진 몰몬경이 대부분 발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쓰여진 몰몬경이 영어로 발행된 몰몬경을 앞서고 있다고 말씀했다.

이 날 참석한 동 스테이크 회원과 구도자들은 훌륭한 말씀을 듣고 강한 신앙의 간증을 얻었으며 그 말씀들이 생활의 지침으로 남기를 원했다.

기사 제공 : 이 진호 기자

말씀하고 있는 구 본동 스테이크장

서울 스테이크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

1989년도 전반기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스테이크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김 용일 스테이크장의 감리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생명을 가진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교성 68 : 8)를 주제로 선교 사업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다. 토요일 오후에 있은 신권 역원회에서는 각 와드/지부의 선교 책임자들이 사례 발표 및 간증을 전했으며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서울 성전장이신 팔머 성전장 내외를 초청하여 성전 사업과 선교 사업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특별히 팔머 성전장은 한국에서 생활했을 때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가며 영적, 물질적으로 발전하고 변화된 오늘날의 상태가 일종의 기적과 같다고 회상해 주어 그동안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일요일 총회에서는 서울 선교 부장이신 신 호범 부장 내외를 초청하여 함께 대회를 가졌다. 선교 부장과 스테이크장단 모두는 대회 주제에 따라 선교 사업의 중요성과 결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일깨워 주었다. 오래 전부터 연습해온 스테이크 합창단의 아름답고 훌륭한 합창이 모임의 영적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주었으며 스테이크 회원 모두 올 한 해는 선교사의 영을 지니고 최소한 한 가족을 교회로 이끌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게 만든 대회였다. 이번 대회에서 6명의 장로와 1명의 대제사가 새로 성임되었다.

선교사 훈련원 제99기 수료

(1989. 1. 16~27)

윤 은주 자매(송림 와드) 대전 선교부
고 정애 자매(대명 와드) 대전 선교부
김 황숙 자매(제주 지부) 대전 선교부
김 영애 자매(수정 와드) 대전 선교부
박 송자 자매(봉천 와드) 대전 선교부
성 은숙 자매(군산 와드) 대전 선교부
김 동근 장로(화곡 와드) 부산 선교부
유 은찬 장로(성남 중앙 지부) 부산 선교부
최 영욱 장로(성남 중앙 지부) 부산 선교부
이 항우 장로(공주 지부) 부산 선교부
조 세훈 장로(풍향 와드) 부산 선교부
김 성환 장로(목포 와드) 부산 선교부
임 상훈 장로(예성 지부) 부산 선교부
손 영주 자매(원주 지부) 부산 선교부
신 성용 자매(성남 와드) 부산 선교부
이 미숙 자매(성남 와드) 부산 선교부
박 수근 장로(원주 지부) 서울 서 선교부
강 동철 장로(마산 와드) 서울 서 선교부
한 정희 자매(금산 지부) 서울 서 선교부
배 철호 장로(예성 지부) 서울 선교부

한국 선교사 훈련원 입소 준비 사항

1) 성전 추천서 지참
2) 선교사 부름에 관한 스테이크장님의 안수
3) 반명함판 사진 3매
4) 선교사 복음 토론을 구입 1토론부터 3토론까지 암기
5) 매일 몰몬경을 읽고 입소시 간증을 백지 5장 정도 제출
6) 필기 도구, 표준 경전
7) 부름 받은 날짜보다 일찍 입소하시기를 원하실 경우 부름받은 선교부의 선교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함
8) 입소 시간 : 입소 당일 오전 9시까지 서울 성전으로 오시면 됨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하루 먼저 오셔서 성전에서 기숙할 수 있음)

한국 선교사 훈련원 1989년 훈련 일정

1 월 16일 — 27일	7 월 17일 — 28일
2 월 13일 — 24일	8 월 14일 — 25일
3 월 13일 — 24일	9 월 18일 — 29일
4 월 17일 — 28일	10월 16일 — 27일
5 월 15일 — 26일	11월 13일 — 24일
6 월 19일 — 30일	12월 11일 — 22일

— 안내합니다 —

…1989년도 한국 선교사 훈련원의 일정을 안내합니다. 선교사로 나가기를 희망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